

“AI 생태계 조성 위해선 사람·데이터 기술·협력체계 구축해야”

광주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포럼'

“AI는 사람들 삶을 풍족하고 편리하게 도움”
“창작과 배움의 공존 위한 환경조성 선행을”

광주의 AI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사람, 데이터 기술과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 공공 협력체계 등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지속가능한 광주를 위한 문화와 AI가 결합된 창조전략 일환으로 일한다.

김종원 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대학원 원장은 7일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포럼' 기조발제에서 “AI를 매개로 광주 시민들 삶이 연결되면 사람들의 삶이 즐거워지고 편해지며 풍족해진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가능한 광주를 위한 문화와 AI 전략은 김연아의 트리플 악셀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며 “악셀(AXL: AI× Everything for Life)란 캐치프레이즈를 잡아서 인공지능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도록 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올해 4회째를 맞은 미디어아트 정책포럼은 이번에는 코로나 여파로 사상 첫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비대면 상황과 포럼 주제를 심각하게 하는 노진아 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 ‘나의 기계 엄마’가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사회자가 기계 엄마에게 사회를 대신 바꿀 수 없는지 질문을 던지자, “인간도 힘들어하는데 인공지능이 내가 더 잘할 수는 없다”는 재치 있는 답변이 돌아와, 현장 분위기를 북돋웠다.

무엇보다 이번 포럼에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데니스 벡스 창의국장 기조 발제자로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데니스 벡스 국장은 “광주가 코로나 상황에 따라, 현대예술 인제와 첨단기술을 연계해 대부분

문화전시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한 것은 창의적 대응 사례”라고 언급했다.

이어 1부 주제 세션 ‘미디어와 AI’에서는 인공지능과 예술, 인공지능 기반의 미디어아트 기술과 사례뿐 아니라 해외 창의도시에 대한 다양한 발표가 진행됐다.

어영정 연세대 응용정보공학 교수는 인공지능과 예술 관계에 대해 긍정적 방향을 제시했다. 어 교수는 “기술이 인간의 영역을 대체해나간다면 인간은 절박한 시간과 지능으로 더 의미 있는 예술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메라가 등장했을 때 사실주의 예술가들이 카메라를 활용하는 사진예술가가 되거나 카메라가 할 수 없는 영역인 인상주의예술을 발전시킨 것이 그 예다.

인공지능을 주체적 존재로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 지급을 검토하는 ‘인공지능권’ 주장도 제기됐다.

장우석 (주) 딜루션 대표이사는 “최근 5년간 인공지능은 AI 기반 고액 만족도 분석 플랫폼부터 의료, 법률, 유통, 쇼핑 등 밀접한 분야를 넘어 미디어아트에서도 활용되기 시작했다”며 “기술이라는 것이 더 이상 기운이 없고 있던 ‘보조 역할’이나 ‘촉매제’가 아닌 ‘주체적 존재’나 ‘개체’ 혹은 ‘예술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실제(육체)만 없을 뿐이지 서버(컴퓨터 하드웨어)는 사무실이자 작업실이고 데이터 트랙픽은 식비와 업무 퍼포먼스의 증명이다.

이어 토론회 창의도시 사례를 발표한 데이비드 로코비 뉴미디어 아티스트는 “유네



7일 광주시 서구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포럼'에서 참가자들이 '미디어아트와 AI'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은 김수형 전남대 AI융합대학장, 어영정 연세대 응용정보학과 교수, 노진아 미디어아티스트, 이주형 ETRI 책임연구원(왼쪽부터)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매개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의성과 표현을 지원하는 창조적 방식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2부 '광주 미디어아트 현재와 미래'에서는 한정영 홍익대 영상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가 만들어야 할 미디어아티스트를 위한 AI 기술 지원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발제자들은 미디어아티스트는 왜 광주를 가야하나? 라는 물음에 창작과 배

움에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신겸 전남대 교수는 “미디어아트와 연계한 광주의 예술관광 추진전략”에서 미디어아트를 연계한 공간과 인프라,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이야기했으며 박진현 광주일보 제작국장은 “광주는 왜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의미의 질문을 던졌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노벨 화학상’ 샤르팡티에·다우드나

여성 과학자 2명 공동수상… ‘유전자가위’ 연구 공로

올해 노벨화학상에 여성 과학자 에마누엘 샤르팡티에와 제니퍼 A. 다우드나가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2020년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프랑스의 에마누엘 샤르팡티에와 미국의 제니퍼 A. 다우드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두 여성 과학자는 ‘유전자가위’ 연구 공로를 인정받았다.



에마누엘 샤르팡티에·제니퍼 A. 다우드나

안타깝게도 후보에 올랐던 현택한 서울대 석좌교수(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연구단장)의 수상은 좌절됐다. 한편 노벨위원회는 8일 문학상, 9일 평화상, 12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또한 그동안 매년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노벨상 시상식은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탓에 온라인으로 대체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제 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

‘기억과 공동체·인권도시의 미래’ 주제… 유튜브 생중계

광주시와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네스코 일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시 교육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공동주최하는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이하 인권포럼)이 7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온라인 개최식을 갖고 4일간 일정에 돌입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인권포럼은 해외도시 시장 17명이 참여한 ‘기억과 공동체·인권도시의 미래’라는 주제로 다양한 인권의제를 논의하게 된다.

이날 개최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청중 없이 온라인 화상방식으로 열렸으며, 이용섭 광주시장 개회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환영사, 미첼 바첼렛 UN 인권최고대표와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기조발제 순으로 진행됐다.

이용섭 시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인 뜻 깊은 해”라면서 “민주·인권·평화의 이정표가 된 5·18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인류의 인권증진과 행복지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광주 공동체 정신은 코로나19 병상연대로 이어졌고, 혐오와 차별을 무너뜨렸다”며 “광주는 많은 인권가치를 떠올리게 만드는 상징이며

인권포럼의 발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미첼 바첼렛 UN 인권최고대표는 기조발제에서 “인권에 헌신하고 있는 많은 도시 시장들의 견고한 네트워크와 인권도시 운동은 국제적 인권의제를 추진하는 데 매우 소중한 자산”이라며 인권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전체회의1에서는 마쿠스 페니히 독일 뉘른베르크 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파벨 무사 튀니지 아리아나 시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인도네시아 보고르 시장, 콜롬비아 보고타 시장 등이 참석해 각 도시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안전하고 포용적인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주제발표에서 인권도시 간의 실질적인 인권연대를 확대하기 위한 ‘광주 인권도시 2030 실천의제’를 제안했으며,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네스코 일부와 협력해 세계 지방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에 기반한 도시발전 전략을 교육하는 ‘광주국제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포럼은 7개 분야 3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세계인권도시포럼 홈페이지(www.whrcf.org)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돼 세계인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노무현 영화제’ 열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는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을 맞아 7일 오후 7~10시 광주 패밀리랜드 자동차 극장에서 ‘제2회 노무현 영화제’를 개최했다.

행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2007년 10월 4일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동차 극장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개회 선언, 이용섭 광주시장의 영상 축하, 김선욱 노무

현재단 광주지역위 상임대표 인사말, 영화 ‘변호인’ 상영 순이었다.

신정호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 사무처장은 “10·4 남북정상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염원한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널리 전파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애쓰셨던 대통령님의 걸음걸음을 좇아 우리가 더욱 힘과 지혜를 모아 그 뜻을 계승 발전시켜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北 조성길 대사, 작년 7월 입국 공식 확인

수차례 한국행 의사… “北가족 걱정에 알려지길 원치 않아”

국회 정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해철 의원이 북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대리의 지난해 7월 국내 입국을 공식 확인했다. 전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일부 취재진과 만나 “조 전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한국에 자진해서 왔다”며 “수차례 한국행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혔고 우리가 그 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전 대사대리의 국내 입국이 1년 이상 공개되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선 “본인이 한국에 온 것이 알려지는 것을 당연히 원하지 않았다”며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조 전 대사대리의 이탈리아 잠적 이후 경로와 현재 국내 거주, 한국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신변 보호를 이유로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조 전 대사대리의 한국행은 1997년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비서 이후 20여년 만의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한국 방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 전 대사대리는 지난해 7월 극비리에 국내 입국해 부인과 함께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 만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용(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전문자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이 적립한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서비스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CCC 동구노인종합복지관 www.noin.or.kr ☎ 062-232-4953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업체 선정 공고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103 휴먼빌딩 4. 보수공사 내용

1. 옥상충방수 및 보수
2. 주차장 패턴 콘크리트 트랜치 보수
3. 배관도색 및 시설물 보수

나. 제출서류: 견적서(밀봉 제출), 시방서 공사지명일 등

다. 보수공사권리 설명회
2020년 10월 13일(화) 오후 3시 관리소 라. 제출기한
2020년 10월 15일(목) 12시까지
마. 상세내용 문의: 062-372-1185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휴먼빌딩 입주사대표회의 회장

주식회사 분할 및 주권제출공고

2020년 10월 0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본 회사(주)대명엘리베이터의 재산 일부인 승강기 부품판매 및 부동산 임대 사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신설법인 주식회사 디엠엘지니어링(가칭)을 설립하기로 하고, 본 회사는 존속하기로 하는 분할계획서의 승인하였는 바, 이 회사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와 본 회사의 주주들은 본 공고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회사에 이의와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08일
주식회사 대명엘리베이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로 1181, 2층(충성동) 대표이사 최광일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투송 이앤지(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유진(이하 '을'이라 한다)은 2020년 10월 07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재산의 일부인 정보통신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에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단 합병비 530조9억 9천9백99원 9천9백99원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 받은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제출일로부터 1개월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본점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0년 10월 08일
'갑'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신기길 1(석현동) 회사 명 : 주식회사 투송 이앤지 대표이사 : 이 건태
'을' 주 소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추설로 777 회사 명 : 주식회사 유진 대표이사 : 정 종민

산행안내

10월17일(토)
▲광주금당산악회 10월17일(토) 충북 포안산·만수봉·용암산, 봉선동 롯데마트앞 06:10, 진월 동식자재마트앞 06:20, 영주체육관 06:30, 한국병원앞 06:40, 문예회관정문 06:50, 비엔날레 주차장입구 07: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先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남**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약구독 220-0550